

그 사이로

9기 박인자

검푸른 언덕 장미넝쿨 사이로
이슬 머금은 길 그 사이로
길 잃은 새들이
천천히 비상하는 날갯짓 사이로……
불쑥 솟은 산봉우리

저녁이 물들어 가는 유리창에
번져가는 무지개 터널 같이
덜 익은 열매들 같이
길 잃은 벗들이
유유히 흐르는 구름같이
빨리 자라 서로 감싸 안으며
영켜있는 나무들 같이

서로를 탐하고
궁금해 하고
그린 월드를 꿈꾸는

그땐 그랬지

그 사이로

줄장미처럼 피는 학창시절을 신고
동창회에 간다
초록처럼 희희낙락
도란도란
이야기 꽃단지
와인 열차가 역사를
철렁거리며 지나간다 덜커덩
아직도 꿈을 쫓는다

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……

지금 팬데믹 소용돌이를

건너고 있는 이 사이에도
달리는 열차처럼……